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원단예배    제목 :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한 해    성경:  
**요한계시록 3장 7-13절**  
 (인내,원단예배,빌라델비아,신약성경,요한계시록,20150101)

7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8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9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10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1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2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13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3:7-13)

2015년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역사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한국의 역사도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2014년은 국내

적으로 국제적으로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

이제는 아무도 세상을 컨트롤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지 않나 여겨진다. 대통령도 얼마든지 무시당하는 세대 가진자가 갑질을 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세대 여전히 좌파와 우파의 싸움이 치열하였다. 그러나 싸움에서 우파가 기선제압을 한 채로 2014년을 마감하고 있다.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 잘난척하고, 악한척하고, 비판하는 말을 잘 하는 사람들이 주목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유사 이래로 그런 자들이 오래도록 주도권을 잡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셨다.

착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척하는 사람들로 파악된다. 자기는 악하지도 못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악하게 굴면 강해 보인다고 생각해서 자기도 그 사람 편에 은근히 선다. 이런것이 척하는 것이다.

자기 주관대로 올곧게 살아가는 것이 더 떳떳하고 편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2014년은 찌질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 많은 한해였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북한 정권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실 날이 멀지 않을 것 같다. 그동안 북한정권의 힘을 빌어 북한식의 통일을 계획하던 자들의 세력이 이제는 꺾이고 말았다. 그들의 최대의 적이 남한의 개신교회였는데, 개신교를 싫어하는 안티기독교인들, 동성애자들, 이단들이 북한정부 동조세력들과 연합전선을 이루어 한국 개신교를 비난하였다.

동시에 2008년 미국발 프라임 모기지론 붕괴 사태는 전세계를 위협하였으며, 이 여파는 2011년부터 개신교 특히 개척교회와 빛을진 교회에게 큰 타격을 안겨 주었다.

개신교는 그 특성상 연합하는데 서툴렀고,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한국 교회는 고난의 세월을 맞보아야 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알곡을 더 여물게 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다.

10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

## 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교회도 그동안 이런 여러 가지 시련에 금융사고까지 겹쳐서 더욱 힘든 세월을 보냈다. 거기에 겹쳐서 보라매기도의집까지 새로 리모델링 해야 하는 사명까지 안아야 했다.

불안을 느낀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여러분들은 그런 와중에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교회를 지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을 믿는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재빨리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활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고 회사를 만들어서 위기를 벗어나는데 힘을 기울였다. 그러자 하나님은 노인들을 교회에 밀려오게 하였고 우리는 노인들을 위해서 전도잔치를 벌였다. 그러자 하나님은 풍성하지는 않지만 쪼들리지는 않는 상태로 회복시켜 주셨다. 현재로는 교회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 2억1천만원 빚을 안는 것 외에는 아무런 빚도 없다는 것에 감사드리자. 물론 노회에서 무이자로 천만원을 빌려서, 그것으로 밀린 관리비를 냈을 뿐 아니라, 힘써서 화장실 보수공사까지 끝냈다. 지난 10월 부터는 원금을 갚아 나가기 시작해서 벌써 200만원은 갚았다.

그동안 얼마 남지 않는 성도들은 힘껏 헌금을 하였고, 교회는 자린고비 정신을 발휘하여 위기를 넘기는데 성공하였다.

이제 우리는 위기를 넘겼다는데 안심하지 말고,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되었다. 온 교회가 합심하여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한다. 더 강력한 교회가 되는 것이 오늘의 사명이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우려의 소리가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거나 않는지 염려가 되기도 하다.

어떤 교인들은 자기의 처지를 보고 힘을 잃었으며, 하나님은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는 자들도 있었다.

어떤 교인들은 열심히 노력했으나 그 열매를 따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다. 어떤 교인들은 지혜롭게 관망 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지켜보는 자들도 있었다.

그러는 와중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 내면서 착실하게 내실을 쌓아가는 교인들도 있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찌질했던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셨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지켜 주셨으며,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8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나 지금이나, 형통할 때나 곤란할 때나, 승리할 때나 부끄러울 때나 항상 우리의 태도는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전진해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침체 되어서는 안된다. 이제는 더 이상 머뭇 거려서는 안된다. 이제는 더 이상 미지근해서는 안된다. 이제는 더 이상 관망만 해서 안된다.

며칠전 어떤 성도로부터 50만원 십일조가 입금되었다. 그 성도는 한때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았던 분이다.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고, 실직의 고통, 가족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으로 우리 교회를 찾았던 분이다.

교회가 어려워진 이후로는 충분히 보살피 드리지 못했고, 간혹 연락이 오면 함께 기도하고 상담하고 했을 뿐이다. 그 사람도 한때는 과거의 화려한 경

력을 잊지 못해서 크고 굵직한 사업에 들떠 있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거듭났으며, 이제는 막노동, 청소, 주차관리인등 탁 치는대로 일을 해서 어느정도 생활을 하며 가정을 돌 볼 수 있는 수준까지 회복되었기에 문득 우리교회가 생각나서 십일조를 보냈던 것이다.

고난을 견딘 사람은 환난을 이긴다.

10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고난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시험의 바이러스를 이긴다.

11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그러기 때문에 더 겸손할 수 있고, 더 노력할 수 있고, 더 감사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라, 감사하며 감동스런 삶을 살아가는자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 혹 2014년 이 주님께 감동 드릴만한 삶이 아니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2015년이 다시금 복으로 주어졌다. 올해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려서는 안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 한 분 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 자신이 처한 처지를 분명히 보고 겸손히 행동하려는 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의 근원임을 깨달아 최선을 다해 순종하려고 하는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결단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린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    제목:    말씀: